

보도시점 2026. 10. 22.(목) 17:00 (2026. 10. 23.(금) 조간)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으로 준비하는 글로벌 ESG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세미나 22일 개최
- 글로벌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 노사협력 대응 모색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오는 10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재단 본사(타워 50) 6층 강당에서 글로벌 ESG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노사상생으로 준비하는 글로벌 ESG 대응 전략」이다.

이번 세미나는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규범의 법제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협력 업체인 국내 기업에도 ESG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재단은 해외진출기업 노동 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노동규범 대응을 지원해 왔다.

특히 최근 글로벌 ESG 대응에서 노동권·인권·산업안전·차별·강제노동·결사의 자유·단체교섭 등 노동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사가 협력해 노동·인권 분야의 ESG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인사·노동 관리자, ESG 담당자, 근로자 대표 및 노동조합 등이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연우 전문위원이 「2026년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와 노사협력적 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환경의 주요 변화와 노동·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노사협력적 관점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국제노동재단 아이하라 이사장이 「노사협력기반 글로벌 노동인권 실사대응 사례」를 주제로 일본의 노동분야 지속가능경영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및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가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제화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 관련 법제화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뒤에는 발표자와 참석자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는 이제 환경 분야를 넘어 노동과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노동조합이 글로벌 ESG 환경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고, 노동·인권 분야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류혜영 (02-6021-1073)
		담당자	선임컨설턴트 김희주 (02-6021-1071)